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통해 '아시아의 로마'로

- 올해부터 30년 동안 2조원 투입, 1단계 선도 사업의 성공이 관건 -

왜 경주인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도시는 유일하다. 도시는 복제 불능의 생명체로 하나하나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탄생하여 성장한 후 소멸해 간다.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2개의 도시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 환경들이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그 도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기 다른 두 개의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구상의 몇몇 특정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에 감탄하며 열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왔던 인간과 도시가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균형과 조화의 정도가 특별해서 커다란 감명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주는 신라라는 하나의 왕조가 수도로 정한 후 천년을 유지해 온 흔치 않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높이가 23m(황남대총)에 이르는 것부터 지상에서는 식별이 어려운 것까지 총 155기의 고분이 도시 한가운데에 1,000년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흔적의 유별남이 범상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는 과거에도 역사 문화 도시였으며 지금도 분명한 역사 문화 도시로 그 기본 성격에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을까?

황룡사의 허법룡은 바로 나의 말이다. ... 본국으로 돌아가 절 가운데 9층 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9한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 '쇠 바탕 이상의 높이가 42척이요, 그 이하가 183척이다' 하였다" (도서출판 신서원 리상후역, 북역 삼국유사 중 제3권 탑상 제4(황룡사 9층탑))

이상은 서기 636년 자장법사가 중국의 태화지 못 득을 지날 때 홀연히 나타난 신령한 사람에 의해 제시된 황룡사 9층탑 건립 설화 중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은 사라진 황룡사 9층탑의 최초 건립 목적이 '길이 평안한 왕위의 유지'에 있었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문화 도시로서 경주의 성격을 가다듬자고 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황룡사 9층탑 건립 목적과 유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다르다. 중국,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과 함께 동북아의 핵심 국가로 길이 평안하게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그 안위의 대상이 왕권이 아니라 경주 시민과 국민 모두, 더 나아가 60억 인류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할 것이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계획으로 신라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고구려·백제의 역사에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고 책임감도 적지 않은 사업이다.

30년간 4단계에 걸쳐 2조원 투입

이 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은 30년(2005~34)으로,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는 2005~09년의 5년 간으로 총 3,500억원을 투입하여 고도를 느낄 수 있는 신라 왕경의 조성, 오감으로 체험하는 관광 체계 마련, 불국토 남산과 종교 유적지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명품 관광 거점 조성 사업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단계는 2010~19년의 10년 간으로 전체 사업 기간 중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2020~29년의 10년 간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문화 및 관광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각종 인프라와 연계 개발하여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게 될 것이다. 4단계는 2030~34년의 5년 간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로서 로마와 아테네 등 세계 유수의 고도들을 능가하는 경주로 새롭게 완성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올 7월 20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진 예정인 선도 사업의 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 문화 도시에 필요한 문화 시설 건립 계획이다. 황성공원에 700억원 규모의

'경주문화예술회관'을 BIL 방식으로 건립하며, 구 경주시청 부지에는 500억원 규모의 '세계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한다.

둘째, 신이 된 왕들의 궁전인 고분군을 활용하여 '한국의 룩소르'라고 할 수 있는 고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5년 간 1,500억원을 투입하여 권역 내 사유지 50만 평을 매입할 예정이며, 황남대총 등 대표적 고분군의 관광 환경 조성에 70억원을 투입하고, 대형 고분의 발굴로 우리 고대 문명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셋째, 황룡사지 전면 복원을 전제로 회랑 등의 부분 복원 및 황룡사와 황룡사 9층탑의 영상 복원 등을 위해 400억원 이상이 사용될 예정이며, 1~2개의 신라방(坊) 복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넷째, 신라의 궁성인 월성 일원을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월성의 상설 전통 공연 및 문화 야시장 개설에 100억원, 신라 해자의 복원에 70억원, 월정교의 완전 복원에 16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섯째, 첨성대와 안압지를 경주 야간 관광의 핵심 유적으로 꾸며 나가게 된다.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를 활용하여 과학과 설화의 접목을 시도하고, 안압지를 빛과 소리의 정원으로 꾸며 첨단 대중 공연을 유치하는 데도 총 15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다.

여섯째, 신라 천년의 문화적 향기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관광 체계로 새로이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경주 관광의 시·중점으로 활용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종합 관광 안내 센터로 리모델링하고, 현재 3km에 그치고 있는 도보 길을 2배 이상 확장하는 등 걸어서 체험하는 신라 관광의 기본 체계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남산의 공간 체계 개선, 불교 성지 정체성 확보, 불국사 성보박물관 조성 사업 등 불국도 남산과 종교 유적지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주읍성 동문 및 동벽을 복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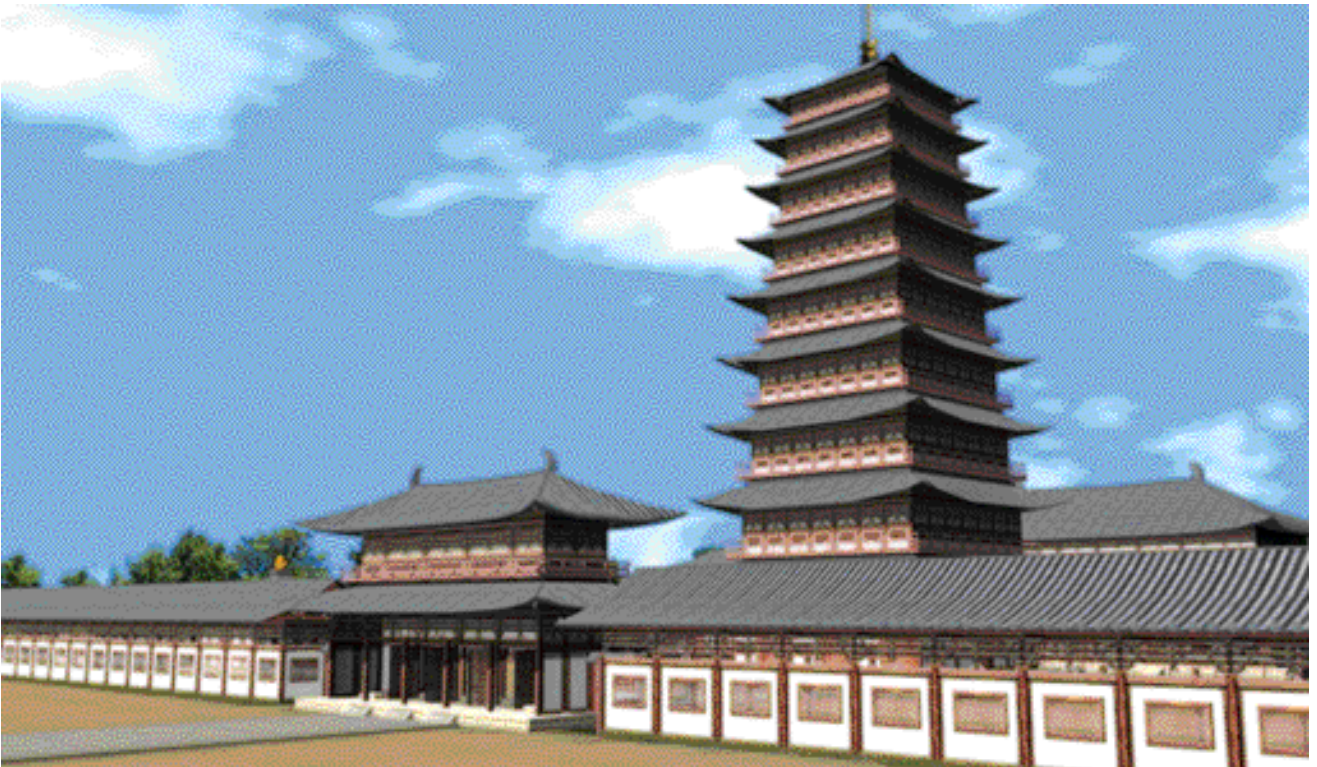
한국의 IT 산업과 뛰어난 수공예 기술을 결합하며, 교촌 한옥마을을 정비하는 등 명품 상권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선도 산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만 하더라도 경주에는 앞으로 30년 간 기본적으로 2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도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될 +α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선도 사업 추진의 성과가 바로 +α의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다.

강점과 기회 지닌 반면 약점도 적지 않아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사업의 기반이 되는 경주가 이천년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급증할 역사·문화·체험 관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과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진될 1단계 선도 사업에서는 황룡사지의 전면 복원을 전제로 회랑 등의 부분 복원 및 영상 복원 등을 위해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 현재의 약점인 고대와 현대의 부조화를 극복하지 못하여 명품 도시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잊혀진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약점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2년여 간 이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그리고 지난 7월 20일의 경주 시민에 대한 선도 사업 보고회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의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정부 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의 밑바탕에는 지금 경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시가 급한데 너무 한기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기본 목적 등을 생각해볼 때 30년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여겨진다.

“진흥왕 14년, 봄 2월에 … 대궐을 고쳐서 … 황룡사라고 지어주었다. 진흥왕 27년, 황룡사가 낙성되었다.” <신서원 편집부편 삼국사기 신라 (진흥왕)>

신라가 모든 국력을 기울인 황룡사 조성에 1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거대한 규모의 재원 투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 사업 추진의 성공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재원이 어느 하나의 사업에 특별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성공을 통해 경주 시민이 문화관광부와 함께 대국민 설득에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의 인내심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과 특별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서안, 일본의 나라와 교토,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스의 아테네, 터키의 이스탄불. 모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고도들이다.

첨성대와 안압지, 1단계 선도 사업을 통해 경주 야간 관광의 핵심 유적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동강 최고의 전문대인 첨성대를 활용하여 과학과 설화의 접목이 시도되고, 안압지를 빛과 소리의 정원으로 꾸밀 예정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도의 반열, 그 중에서도 맨 앞자리에 경주를 자리 잡게 하려고 한다.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그 꿈이 한 개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한 민족이나 국가의 꿈인 경우 거기에 소요되어야 할 노력의 크기는 가히 상상하기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노력이 투입된다 해도 아까울 턱이 없다. 2,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국제 평화 도시, 문화 예술의 도시,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었던 경주를 오늘의 역사 문화 도시로 되살려



내는 잃은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박영대
문화관광부 과장